

커튼이 닫힌 어두운 방을 모니터가 파랗게 밝힌다. 행한 눈으로 밤을새며 손마디가 아프게 자판을 친다. 억양도, 음색도 없는 대화로 자신의 상상속에 있는 이상형과 대화를 한다. 그리곤 아주 행복해 한다. 영화 접속이 이런 만남을 희망적으로 표현했지만 인간과의 만남 자체를 즐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차폐중이란 말과 물질문명의 사생아란 말만 어울릴 듯하다.

이번주 주제
학 점
◇Free style은 이론화를 지향하기보다 감성으로서 깨어진 대학문화를 맞춰 나가려는 기획 테마신문입니다.
◇Free style에 격주 게재되는 인물포커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학에 왜 가야 하나?

대입을 앞에 두고 공부하던 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문제이다. 대입기출문제를 풀며, 선생님이나 찍어주는 문구를 외우며 더욱 절실히 다가오던 그 물음이 지금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대학은 왜 존재하나? 난 4년간 무엇을 해야 하나?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이제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간 문제들이 다시금 파고들지 않는가? 9시 뉴스를 보며 취업이 어찌고 경제가 어찌고 하면 참참하기 만한 심정엔 '대학존재의 이유'가 언뜻 고민거리로 다가오지않나 싶다.

학생 본연의 의무는 공부이다. 그 현실적인 결과물은 바로 학점이다. 학점은 앞으로 편안히 먹고사는 데 아직까지 이 사회에선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4년의 대학생활이 모두 학점으로 귀결될까? 그것으로만 대졸자들은 평가받아야 하나? 그러기엔 억울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서 학점을 잘 따는 일은 주위사람들과의 친화력과 큰 함수관계가 있다. 인생을 좀 더 편안히 살기위해 필요한 것이 대학이기도 하듯

오직 A+을 찾아 4년을 헤매이나

다. 취직에 있어 졸업학점이야 3.5 이상이면 안전선이라 해도 1, 2학년때 지나치게 학점이 높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벌레'라는 인식이 박혀 면접에서 불리하다나? 그래서 일부러 학점을 낮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2월 서울대 개교 이래 최고졸업학점인 4.28(만점 4.3)을 받은 이모씨는 8학기 동안 교양과목 단 두 개만 A를 받고 나머지 모두 A+인데 학벌최고, 학점최고인 이 사람은 과연 취직이 잘 될것인가? 다행히도 이모씨는 학문에 뜻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였기 때문에 평가기준으로서의 학점이 부른 비정상적인 차별을 경험하지 못할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학점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학내 동아리와 학생회는 조금씩 일꾼하기 힘들다

10년을 넘어가는 족보가 있고 커닝이 대 학문화가 된 지금 과연 학점이란 것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력은 뒷전에 밀린 채 단순히 4년간의 성실지수로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학점을 좀 더 쉽게 따기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친화력이다.

내일모레가 시험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하겠는가? 고등학교때처럼 노트필기와 핵심사항을 차근차근 복습하겠는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름길도 있다. 같은 과 친구들의 빼빼번호를 적은 다이어리를 찾는 일이다. 그 것이다. 족보를 구해야 한다. 한 4년치 족보를 모두 구한다면 분명 좋은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하나 4년 이상 결강이면 F학점을 주신다는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늦잠으로 지각할 위기에 처했다. 괜히 지각이라도 체크되면 학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때도 다이어리를 찾아라. 빼빼 한 통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친화력과는 좀 다른것인데 한갈래 지름길이 또있다. 그 지름길은 바로 강의실 책상이다. 적고적고 또 적고해도 책상은 넓지만 하다. 모두가 하는 커닝 안하면 바보다. 고집이 있어 정도를 가졌다면 성적표가 나오고 취업전에 다가설 때 '그래도 정직했던 결과야'라며 뿌듯해 하지 마시길 이미 경쟁자들로 인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0년을 넘도록 변치않는 족보가 있으니 출석에 높은 성적평가 비중을 두었고 철저한 감시가 없으니 커닝이 하나의 대학문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학점이란 것이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잣대가 될지 의심이 든다. 학점이 대변해주는 것은 한 사람의 성실도가 전부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런 허구성이 짙은 학점을 아직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대학가 일부 저학년들은 희귀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

는 말을 한숨쉬어 내뱉고 있다. 특히나 우리학교 중산도 동아리나 문화비평동아리인 백단 등은 그 현상이 특히 심해 동아리운영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안좋아 거의 모든 단체 학생회에서 저학년의 저조한 참여로 힘들게 학생회일을 꾸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취업과 연관이 깊은 컴퓨터, 영어 동아리의 경우 지원율이 해가갈수록 증가해 우리 학교 컴퓨터동아리 Com.Com의 경우 올해 초 97학번 1백명이 지원해 면접을 통해 30명을 선발했다 한다.

다양한 경험과 관심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의 기회를 주는 과외활동은 오로지 학점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얻지 못하는 많은 것을 준다. 오히려 이러한 과외활동에서 얻는 것이 지금 우리의 대학에서 얻는 것 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여 입사자격요건중 학점과 토익점수가 일순위로 이런 동아리관련 활동상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여길 뿐이다. 그래서 현실을 생각한다면 배낭여행보다 어학연수가 우선이요, 경험보다는 지식이 먼저이다.

학점을 좋게받는 이들이 모두가 공생원이고 기회주의자란 말은 아니다. 학점이 좋건 나쁜건 잘못된 평가기준에서 다같이 해를 입고있는 것이다.

20대 청년으로서 처음으로 주어지는 자유 속에 펼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일단의 접어 두어야 인정받는 자'가 된다.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뒷전에 밀린 채 4년간의 성실지수로만 미래가 보장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대학생 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름대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동욱 기자〉



□ 학점위주평가의 대안방향

공부만이 대학생 생활 전부 아니다

사회봉사, 동아리활동 학점 포함해야



4년의 대학생활이 학점취득만을 위한 시간이 되지않게끔 나름대로의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학교에선 이번 학기부터 '사회봉사학점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청자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3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은 1학점으로 인정되고 성적표엔 'Pass'로 기입되며 사회봉사 이전에 정규수업인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그러하듯이 사회봉사동아리가 날이갈수록 인원감축과 방향성 문제로 고심 하고있는 실정이다. 사회현상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높은 취업의 문턱이 이런 현상을 낳았는지는 몰라도 활동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이 제도가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과 제도는 다르다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이 제도마저 우리학교를 처음으로 시작되었기에 아직 다른 대학에선 시도되지 않고 있다.

사회봉사학점 인정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현 CRS과목처럼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여 것처럼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실적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토익, 학점이 입사자격의 주류를 이루는 지금의 현실이 어느정도 나아진다면 하버드를 포함한 외국의 명문대학들이 그러하듯 동아리활동까지 의무적인 학점취득과목으로 지정해볼만 하겠다.

